

시즌 6
제2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준6 제2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현대소설 : 전상국, 「동행」

* 수록 지문 평가

지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억구와 동행하는 큰 키의 사내는 작품 정황상 형사로 짐작된다. 살인을 저지른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동행하는 갈등 상황에서, 인물의 선택과 결단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는 소설이다. 인물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징적 사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

* 수록 지문 분석

고개로 접어드는 산기슭, 보득술밭[→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어린 소나무 밭]을 지나며 먼저 입을 뗀 것은 억구였다.

“제에기랄, 우리 어렸을 적만 해두 이 보득술밭엔 토끼두 술했는 데..... 거, 눈이라두 좀 빠졌을 땐 그저 두어 마리 때려잡긴 예사였 소만..... 그런데 거 토끼란 짐승은 눈엔 영 맥을 못 쏘데다.....”

⇒ 여기서 토끼는 중요한 상징이다. 억구의 토끼 이야기는 큰 키의 사내의 토끼 이야기로 이어지고, 작품의 결말에 나오는 ‘토끼를 구해 주지 못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러자 큰 키의 사내가 회고조로 천천히 말을 받았다.

“이거 토끼 얘기가 나왔으니 생각이 납니다만.....”

⇒ 이후는 큰 키의 사내가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큰 키의 사내는 ‘이쪽’이라고 표현된다.

중학 이 학년 때인가 전교생이 학교 뒷산으로 식수(= 나무를 심음)를 나갔다. 이제 싸릿순이 과랑게 터져 오르는 싸리밭에서 토끼 똥을 주워 든 아이들이 장난삼아, 토끼 여겼다야— 하자 여기저기서 웅성대다 보니 그제 그냥 토끼 사냥이 돼 버렸다. 상급반에서 정말 한 마리 풍겨(= 짐승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스크림(= 여럿이 팔을 바짝 기고 횡대를 이루는 것)이 허술한 물이어서 그놈은 이내 포위망을 빠져나가고 말았지만 어쩌다 이제 겨우 발발 기어 다니는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았다. 토끼 새끼를 번쩍 쳐들어 둘러선 아이들에게 구경을 시킨 생물 선생은 싱글거리며 봄벌레 노곤히 지켜 있는 이쪽[→ 큰 키의 사내]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잘 가지고 있어라— 했다. 열결에 새끼 토끼를 받아 든 이쪽은 생물 선생의 말을 들으면서 그만 헛구역질을 했다.[→ 새끼 토끼를 해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거부감이 들었다는 말이었다.] 이놈을 생물 시간에 해부를 해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해부를 한 다음에는요? 하고 어떤 녀석이 장난조로 묻자, 하 그건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를 테지만, 거 토끼 고기가 뭇뭇에는 최고지— 하는 생물 선생의 말을 받아 아이들은 함창하듯,

“토끼 다리 술안주!” 했다. “고오놈들.” 과히 무서울 것 없는 호령이었다.

⇒ 해부를 하거나 잡아먹겠다는 말에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지 않다.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새끼 토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쪽’[→ 중학 시절 ‘큰 키의 사내’]은 작고 어린 새끼 토끼의 생명에 연민을 가지고 가엾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조막만 한[→ ‘주먹’이 아니라 ‘조막’이라고 표현하여 토끼 새끼가 무척 작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토끼 새끼의 귀를 잡고 앉아 있는 이쪽은 요렇게 작은 걸— 내심으로 툄툄대며 자꾸 헛구역질을 했다.[→ 죽을 운명인 토끼 새끼에 대한 연민으로, 토끼를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토끼 새끼의 가슴팍에 손을 대어 봤다. 파득파득 뛰고 있는 가슴팍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새끼 토끼가 살아 있음을 감각으로 느끼는 장면으로 생명

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이때 누군가, “저기 에미 토끼 온다야!” 소릴 쳤다. 정말 쉼빛 토끼 한 마리가 이리로 곧장 구르다시피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에미다, 에미! 야, 인마, 그 새끼 에미가 보두룩 번쩍 들어라. 번쩍.....” 국어 선생이었다. 에미 토끼를 포위하기란 수월했다. 아이들이 와와 소리쳤다. 에미 토끼는 이리저리 핑핑 돌기만 했다.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핑핑 돌기만 하던 에미 토끼가 갑자기 딱 멈춰 서며 이쪽의 번쩍 쳐들고 있는 새끼 토끼를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몰려 겁을 먹고 도망가려던 토끼가 새끼 토끼의 존재를 의식한 장면이다.] 이 당돌한 기세에 아이들도 주춤했다. 쉼빛 에미 토끼의 쭈뼛 곤두선 두 귀와 까만 눈빛, 빛나는 눈알을 보자, 이쪽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에미 토끼의 생명력과 기세 앞에 전율한 ‘이쪽’] 그러자 이때 살기 차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쪽을 노려보던 그 에미 토끼가 썩하니 이쪽에게로 내달아 오기 시작했다. 둘러섰던 아이들이 그제야 와아..... 소릴 쳤다. 새끼 토끼 역시 무어나 알기라도 한 듯 부들부들하며 킁킁거렸다. 이쪽은 에미 토끼의 눈에서 무엇인가 번쩍 하는 걸 본 듯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마치 불꽃 같은— 순간, 새끼 토끼를 쳐들고 있던 이쪽은 그만 열결에 비켜서고 말았다.[→ 에미 토끼의 기세에 눌리고 말았다.] 그 틈이 난 사이로 토끼가 빠져나가 산으로 치뛰고 있었다. 치뛰는 토끼를 쫓는다는 건 무모한 것이었다. 모두들 악을 쓰다시피 이쪽에게 욕을 해 대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쪽은 멍하니 선 채로 치뛰는 에미 토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학교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도 않고 에미 토끼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토끼 새끼의 두 귀를 움켜쥔 손바닥에 땀이 배었음을 늦게야 깨달았다.[→ ‘이쪽’이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거,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성애란 무섭거든—[→ 에미 토끼가 처음에는 겁에 질렸다가 무서운 기세로 새끼 토끼에게 달려온 것이 모성에 때문이라는 거다.] 하고 입을 연 국어 선생님은 금세 입을 해— 벌리며 “하, 그놈 꽤 크던걸, 그으거 참.....” 이쪽에게 힐끔 눈살을 주면서였다.[→ 에미 토끼가 꽤 컸다는 말은 잡아먹고 싶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어 선생님은 ‘이쪽’ 때문에 그 에미 토끼를 놓친 것이 아깝지만, 차마 야단은 치지 못하고 ‘이쪽’에게 눈치를 주고 있다.]

⇒ 여기까지가 큰 키의 사내가 하는 이야기이다. 아래부터는 다시 전과 같이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눈길 속에서 동행하는 현재 상황이다.

“하야, 그럼 누군 입맛을 안 다시겠소?[→ 국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다는, 그리고 그 생각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다.] 그때 선생님께선 욕캐나 먹게 됐수다 뭐.”

흠흠 웃으며 억구가 말했다. 그러나 자못 정색을 한 큰 키의 사내는, “욕이 문젠니까? 그보다두 다음 생물 시간에 벌어질 일[→ 새끼 토끼의 해부]을 생각하니.....”

하다간 그냥 겹연쩍게 웃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 다음 날 고 조막만 한 토끼 새끼 해볼 합니까? 그 고긴 술안주 하구.....?”

억구가 다시 흠흠 웃었다.[→ 큰 키의 사내는 토끼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정색’을 하며 진지해진다. 하지만 억구는 ‘흠흠’ 웃으면서 그 진지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자 큰 키의 사내는 보득술을 붙잡고 끙끙 힘을 써 오르며,

“글쎄 그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날 밤 꽤 피곤했지만 잠이 톱 오질 않더군요. 그 에미 토끼의 도사리고 노려보던 눈, 그리고 배를 짚이는 새끼 토끼의 환상이 자꾸..... 그에 난 생물 선생네 토끼장의 위치를 짐작하며 잠자리에서 빠져나오고야 말았습죠.”

⇒ 밤에 몰래 생물 선생네 집에 가서 새끼 토끼를 구해 주겠다는 생각

을 했다는 말이다. 큰 키의 사내는 계속 토끼, 즉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연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 큰 키의 사내가 다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인용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큰 키의 사내의 이야기를 이어받은 억구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고백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그의 부친이 고향 사람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과, 그가 현재 부친의 원수를 죽이고 고향으로 가는 길임이 드러난다. 말을 마친 억구가 떠나려 하자, 큰 키의 사내는 그를 멈춰 세운다.

억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 큰 키의 사내는 내적인 갈등을 겪는 중이다. 억구의 정체와 사연을 다 알고 나니 억구의 삶에 대한 연민이 생겼고, 억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 된다. 만약 큰 키의 사내가 형사라면, 억구를 체포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담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넌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레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 큰 키의 사내는 결국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다. ‘남의 담을 넘는’ 것이 ‘나쁜 짓’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연민을 가진 대상 즉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 준 새끼 토끼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학생 때의 이 경험이 큰 키의 사내에게 이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새끼 토끼를 구해 주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억구를 놓아 주는 선택을 하게 된다.

⇒ 토끼 에피소드로 인한 과거의 트라우마는 현재 사건에서 소설의 결말을 선택하는 데 내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 키 큰 사내의 이 내적 독백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애물	연민의 대상
토끼 에피소드	담	토끼 새끼
현재 사건	형사라는 직업적 의무	억구
↓		
상징적 의미	사회 규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감

[20~25] 인문 융합 : 전통적인 화이론과 박제가의 실학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동양 철학 - 화이론, 복학

고대 중국인들, 천하, 한족, 사방, 이적, 중화, 화이론, 예악, 성리학, 명, 청, 북벌론, 소중화, 실학, 북학과, 해석, 북학의, 이용후생, 농본주의, 박제가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천하와 사방

1) 공자를 비롯한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천하(天下)와 사방(四方)으로 양분된다. A.천하는 A.한족(漢族)의 지배자인 A.천자가 도덕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A.세계의 중심이며, ...

[맥락 짚기]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다. 자기들이 위치한 공간인 ‘천하’는 천자의 덕이 미치는 세계의 중심이지만

2) 그 B.주변인 B.사방은 오랑캐인 B.이적(夷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아직 B.천자의 덕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다.

⇒ ‘이적’들이 위치한 ‘사방’은 그렇지 못한 세계의 주변이라는 얘기다. A와 B 사이의 대비가 뚜렷한 세계관이다.

A.천하(天下)	B.사방(四方)
도덕 정치 실현 ○	도덕 정치 실현 ×
한족(漢族)	이적(夷狄)
세계의 중심	세계의 주변

3) 이렇게 A.문명의 중심이라는 의미의 A.중화(中華)와 그 B.주변[→ 사방(四方)]을 구분하여 계층적 질서로 규정하면서, ...

⇒ 한마디로 A는 지리적으로도 중심이지만 문화적으로도 중심이라는 얘기다. 이렇듯 A인 ‘중화’가 B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수직적·계층적 질서가 성립해서

4) 중화를 받들고 이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여기는 관념을 화이론(華夷論)이라 한다.

⇒ A를 따르고 B를 배척해야 한다는[→ A > B] ‘화이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단다.

문단2 : 화이론

1) 화이론은 민족적 차이에 근거하여 B.이민족과 구분되는 A.한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관념의 발로(=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남)인 측면이 있으나, ...

⇒ 기본적으로 민족적 우월감이라는 저급한 관념에서 생겨난 것도 맞지만, 민족이라는 기준으로 A와 B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짚기] 이런 측면을 ‘민족적 차이에 근거한 화이론’이라고 불러 보자.

2) 공자와 맹자에 따르면 본래 A.화(華)와 B.이(夷)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종적 차이가 아니라] 예악(禮樂)의 존재 여부에 있었다. 예악은 예법과 음악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유가의 가치 체계에서는 ‘예’와 ‘악’으로 사람들을 교화함으로써[→ 천자의 도덕 정치]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이런 측면을 ‘예악의 존재 여부에 근거한 화이론’이라고 불러 보자.

[주목] ‘화이론’의 애초의 취지는 ‘화’와 ‘이’를 인종적 차이에 의해 구별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B가 ‘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악에 의해 교화되기만 한다면, B에도 천자의 덕이 미칠 수 있다는 게다.

3) 즉 B.야만적인 이적의 풍속을 따르느냐 A.인(仁)으로 다스리고 ‘예’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느냐에 따라 ‘화’와 ‘이’로 나뉜다는 것이다.

⇒ ‘한족’인 철수는 한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적’인 영희보다 우월한 게 아니다[→ ‘화’에 속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영희도 ‘예악’을 받아들이면 ‘이’가 아니라 ‘화’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다.

4) 화이론의 이러한 측면은 한족이 융성했던 시대에 유교적 질서를 확장[→ ‘이’로 하여금 예악을 받아들여 ‘화’로 포용될 수 있게도 했지만]하고 동아시아의 계층적 안정성[→ ‘화’와 ‘이’ 사이의 계층적 위계의 성립]을 가져오는 데에 기여하였다.

[맥락 짚기] 한마디로 ‘한족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예악의 존재 여부에 근거한 화이론’이 우세했지만[→ ‘이’는 예악을 받아들이면 언제나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세했지만]

5) 다만 이적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시기에 화이론은 중화의 문화를 배워 중화로 편입될 수 있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4)] 물리쳐야 할 대상인 척사(斥邪)의 대상으로 이적을 규정하는 경향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맥락 짚기] 반대로 ‘한족이 위협을 받던 시기’에는 ‘민족적 차이에 근거한 화이론’이 우세했다는 얘기다[→ ‘이’는 ‘화’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했다는 얘기다.].

문단3 : 북벌론

1) 조선에서

[맥락 짚기] 문단2까지는 ‘중화 입장에서 화이론’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선 입장에서 화이론’에 대한 설명이 펼쳐질 게다.

2) 화이론은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관념으로, 단지 A.대국을 섬긴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성리학에 따라 유교적 윤리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Rew] 문단2-2)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조선 입장에서도 ‘화이론’은 ‘예’와 ‘악’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여 유교적 윤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관념이었다.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3) 그런데 조선이 선진 문화국으로 칭송했던 A.명(明)이 이적인 B.여진족이 세운 청(淸)에 의해 멸망하자 조선의 화이론은 근본에서부터 위기를 맞았다.

⇒ 그럴 만하다. A가 B에 의해 무너진 상황이니 동아시아의 계층적 질서가 붕괴한 게다.

4) B.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北伐論)은 이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임진왜란 때 도움을 주었던 A.명에 은혜를 갚자는 ‘재조지은(再造之恩)’과 병자호란 때 청에게 당한 치욕을 되갚자는 ‘복수설치(復讐雪恥)’의 명분 뒤에는, ...

⇒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으니 B를 정벌해야 한다는 것은 ‘북벌론’의 부수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5) 천리(天理)와 인의(仁義)를 지닌[→ ‘인(仁)’으로 다스리고 ‘예’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는] 조선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화이론적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 예악을 받아들인 조선이 B를 물리침으로써 ‘화이론적 국제 질서’[→ A > B]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북벌론’의 진짜 명분이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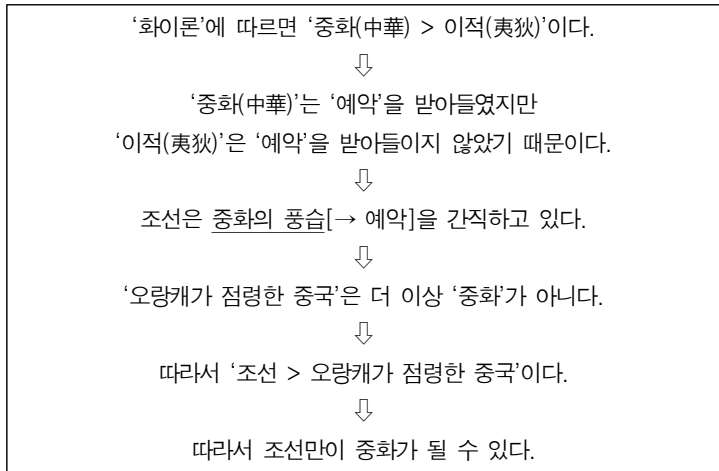
문단4 : 소중화 관념

1) 송시열을 비롯한 북벌론자들은 A.중화의 문화가 결코 한족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Rew] 맞다. ‘중화의 문화’는 오직 ‘한족’만이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민족적 차이에 근거한 화이론’[→ 문단2-1)]과 다르지 않다. 송시열은 이와 달리 ‘예악의 존재 여부에 근거한 화이론’[→ 문단2-2)]을 주장했던 셈이다.

2) 조선이 그 문화를 일으켜 스스로 A.중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오랑캐가 점령한 중국은 더 이상 중화가 아니며 오직 중화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만이 중화라는 A.소중화(小中華)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주목] B에 의해 ‘한족’이 무너졌으니, 이제 유일하게 예약을 수용한 ‘조선’이 ‘중화’가 되어 A의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략 이런 순서의 논리였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북학파

1) 18세기 조선은 전란으로 황폐해졌던 산업이 재정비되면서 경제와 문화 활동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증시킨 **실학**이 등장하였는데, ...

[맥락 짚기] 새로운 관점 ‘실학’의 등장이다. 아무래도 (가)의 ‘화이론’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목해 가면서 읽어 나가야겠다.

2) 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변적인[→ 경험에 의하지 않고 관념에만 의지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경향에만 머물렀던 성리학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주목] ‘성리학’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변적인 경향에 머물렀다는 것은 ‘실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겠다.

⇒ (가)의 문단3-2)에 따르면 당시의 조선은 ‘성리학’에 따라 유학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학자’들이 보기에 당장 이 땅에 필요한 건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실천’이었던 게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성리학	실학
유교적 윤리의 이상을 조선에 실현하고자 함	현실에서의 실천을 중요시함

3) 실학의 여러 유파 중에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기술의 도입과 상업의 활성화를 강조한 유파를 **북학파**라 한다.

⇒ ‘북학파’는 현실에서의 실천들 중에서도 ‘기술의 도입’과 ‘상업’에 특히 많은 관심을 두었다.

4) 이들 북학파는 자신의 자격으로 청을 방문했던 연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고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 당장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현실과 유리된 사변적인 얘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5) 유학을 따르면서도

[주목] 중요하다. 이들이 기존의 ‘성리학’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유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6)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풍인 북학(北學)을 제기하였다. ‘북학’이라는 말은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책에는 서양으로부터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발달

한 청의 기술과 그 적용 방법론, 그리고 도구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정리하면 ‘북학파’는 발달한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백성의 가난을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 현실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게다.

문단2 : 박제가와 화이론

1) 청이 건국된 후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반청 의식이 강하게 유지되었던 당시에 ‘북학’을 제기한 **박제가**의 태도를, ...

[맥락 짚기] ‘박제가’를 비롯한 ‘북학파’는 (가)의 문단3으로부터 100여 년 후에 등장한 관점인 게다. 당시에도 B에 해당하는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하였는데

2) 전통적 화이론이나 소중화 관념에서 벗어나 청을 따르고자 하는 시도로 보는 **해석**도 있으나, ...

⇒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 “박제가 이 놈, 설마 우리의 명나라를 무너트린 청나라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을 ‘변질론’이라고 불러 보자.

3)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을 배워야 하는 근거로 중화의 제도와 풍습이 청에 잔존하여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박제가는 화이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변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하지만 ‘변질론’은 오해고

⇒ ‘북학파’는 유학을 여전히 따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화이론’도 여전히 긍정했다는 얘기다. ‘북학파’가 청에서 배우고자 한 것은 어디까지나 A의 가치[→ 남아 있는 명나라의 예약]이지, B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목] (가)의 문단4-2)에서 제기된 ‘소중화 관념’에 따르면 오랑캐가 점령한 중국[→ 청나라]은 더 이상 중화가 아니다. 이와 달리 ‘북학파’는 ‘청나라’ 안에도 여전히 중화의 제도와 풍습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던 게다. 나름 청나라 안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내려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다.

4)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박제가의 화이론의 근본 취지에 따라 화이론을 당대의 현실에 맞춰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뭐 그렇겠다. 이런 해석을 ‘현실 적용론’이라고 해 보자.

문단3 : 박제가와 소중화 관념

1) 나아가 박제가를 위시한 북학파는 존명배청(尊明排淸)[→ 명을 떠받들고 청을 배척해야 한다는]의 의리론과 소중화로서의 자부심을 버려 본 적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

⇒ 문단2-3), 4)의 해석을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라는 해석이 있다는 얘기인데

2) ‘명나라의 원수를 갚으려면 힘써 중국[→ 청나라]을 배워야 한다.’라는 박제가의 글을 보았을 때 청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 이들이 주목한 문헌에 따르면 ‘박제가’는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중화의 제도와 풍습’을 배운다고 해서[→ 현실 적용론] 명나라의 원수를 갚기는 힘들 텐데 좀 더 읽어 봐야겠다.

3) 기구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조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신을 철저히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Rew] 여기서 ‘기구들을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문단1-6)의 ‘청의 기술과 그 적용 방법론, 그리고 도구들에 대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겠다. 즉 이들은 ‘박제가’가 청으로부터 배우고자 한 것은 사실상 ‘발달된 기술과 도구’였다고 주장한 게다. 이런 해석을 ‘기술 수용론’이라고 해 보자.

[주목] 이제 알겠다. 박제가가 청나라를 배우고자 한 바에 대해 ‘현실 적용론’은 청나라에 남아 있는 중화의 풍습[→ 예약]이라고 주

장했다면, '기술 수용론'은 더 나아가 청나라의 발달된 기술과 도구라고 주장한 게다. 그래야만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 이용후생의 정신], 그래야만 청나라를 정벌하여 '소중화'로서 화이론적 질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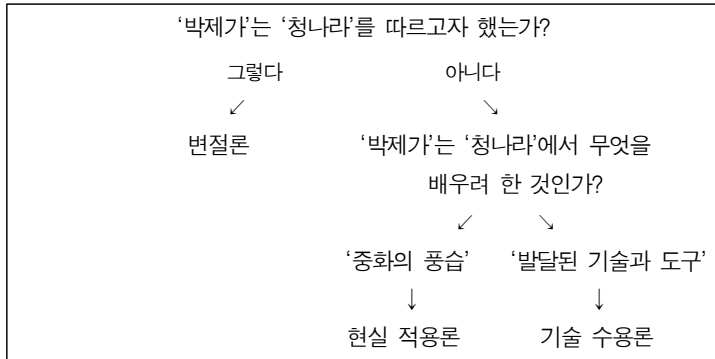
4) 박제가가 상업과 국제 교역을 강조하면서도

[Rew] 이걸 문단1-3)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다.

5) 농업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성리학적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 이걸 새롭다. '북학파'가 사실은 '농업'을 더 중시했다면 도대체 상업과 기술의 도입을 중시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지 아무래도 마저 읽어 봐야겠다.

[맥락 짚기] 문단2, 3에서 다른 해석들을 정리하면 이렇겠다.



[참조] '현실 적용론'이 청나라 안에서도 배울 '중화'의 가치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면, '기술 수용론'은 존명배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자에 비해 '반청 의식'을 더 강하게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문단4 : 농본주의와 박제가

1) 박제가는 유학자이자 조선의 관리였다. 그는 『북학의』를 통해 전답(田畵) 설치를 위한 방법론, 농사짓는 기술, 수레나 연장 등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등을 상세히 전하였다. 이는 농본주의에 입각하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였다.

[맥락 짚기] 갑자기 '박제가'를 유학자라 칭했다고 당황하지 말자. 실학자로서 성리학을 비판했지만, 그는 여전히 유학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 오호라 '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두었던 것도 실은 농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던 게다.

2) 다만 이때의 농업은 단지 농사짓는 일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제반 사항, 즉 상업이나 교역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 더 나아가 '농본주의'에서 말하는 '농업'이란 문단3-4)의 상업과 교역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었다.

3) 그가 추구한 실리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유가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유학의 실천이면서 동시에 관리의 역할이었다.

⇒ '박제가'는 실학자로서 현실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학자로서, 유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현실에 실천하기 위한 외침이었다는 얘기다.

[주목]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제가'는 성리학처럼 유학의 이상을 추구하는 대신 당장 유학의 실천을 추구한 유학자인 게다. 정말 멋진 마무리다.

[26~29] 사회 : 고령화가 경기 변동과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인플레이션,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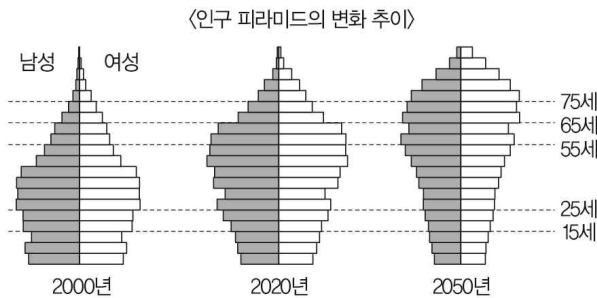
고령화, 경기 변동, 물가 수준, 총수요, 총공급,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생애 주기 가설, 기대 경로 가설, 노동 생산성 하락 가설, 자산 가격 하락 가설

* 지문 분석

문단1 : 화제 제시 -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고령화**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 맞물려 노동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맥락 짚기] '고령화'의 정의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양상은 대략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2) 이[→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노동 공급과 소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어], 경기 변동은 물론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다. 문제는 그 영향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는지를 따져 보는 일일 텐데

[주목]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자, 앞으로 전개될 글의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이 되겠다. 집중하자.

[참고] 경기 순환 : '경기'란 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국가 경제의 활동이 활발하여 '경기'는 확장일 때도 있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불황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확장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국가 경제의 활발함의 정도는 결국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3) 특히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물가 수준'의 하락과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령화가 꼽히고 있다.

[맥락 짚기] 2)를 보완하는 보너스 예시다. 챙기고 넘어가자.

문단2 :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에 의한 물가 수준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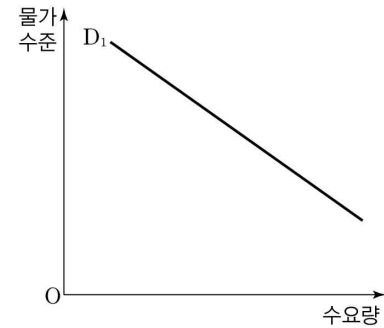
1) 본래 경기 변동과 물가 수준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개별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듯이, '물가 수준'도 기본적으로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단다.

[참고] 물가 수준 : 이론적으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구매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한 값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물가 수준'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흔히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하고 현재 물가를 지수의 형태로 표시하는데 이를 '물가 지수'라고 한다. 결국 '물가 수준'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며 '가격'은 '화폐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화폐 경제와 '경기 순환'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총수요**는 사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계이며,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해당하는 수량이 X축, 물가 수준이 Y축인 좌표 평면에서 **총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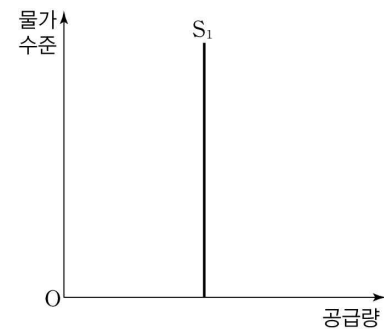
⇒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다. 개별 재화의 '수요 곡선'과 똑같이 생겼다.



<총수요 곡선>

3) **총공급**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팔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계이며, **총공급 곡선**은 분석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수직인 형태를 띤다. 장기적으로 물가 변동은 그저 임금에 반영되어 버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도 오르고 물가가 하락하면 임금도 내려서, 물가가 내린다고 그대로 공급량이 줄지도 않고 물가가 오른다고 그대로 공급량이 늘지도 않아서], 공급량은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 생산 기술 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적으로 공급량은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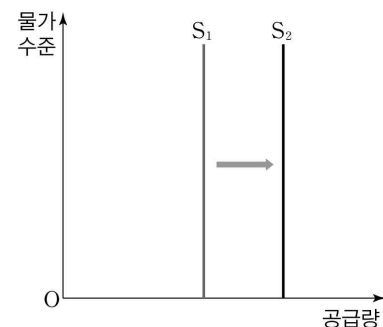
⇒ '총공급 곡선'이 장기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다. 개별 재화의 '공급 곡선'과 다르게 생겼다.



<총공급 곡선>

4) 자본 확충이나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증가, 노동 인구의 증가 등은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결과적으로 '총공급'은 '물가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 규모', '노동 생산성', '노동 인구'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총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 반대로, '자본 감소', '노동 생산성의 감소', '노동 인구의 감소' 등은 '총공급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킬 게다.

[참조] '노동 생산성'이란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을 가리킨다. 수식으로는 $\frac{\text{생산량}}{\text{노동 시간}}$ 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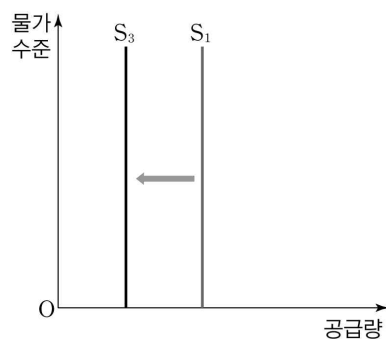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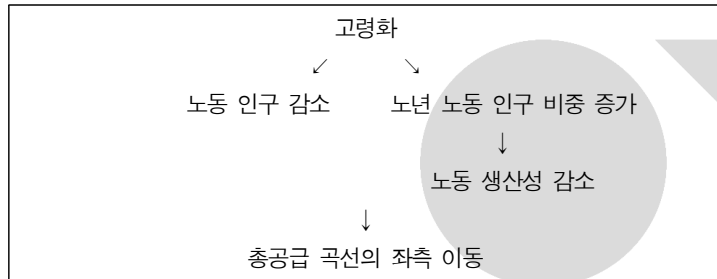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문단3 : 고령화가 총공급과 총수요, 나아가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

- 1) 고령화는 노동 인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일하는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를 감소시키고],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인 노년 노동 인구의 비중을 높인다[→ 일하는 인력 중 노년층의 상대적 비중도 높인다.]. 노년 노동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어서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맥락 짚기] ‘고령화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 인과적 방식으로 진술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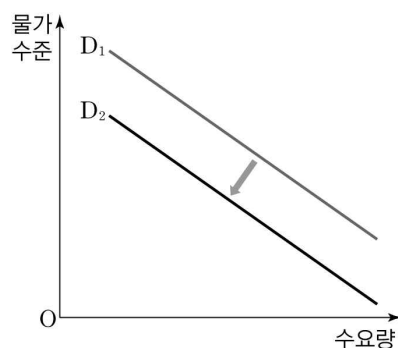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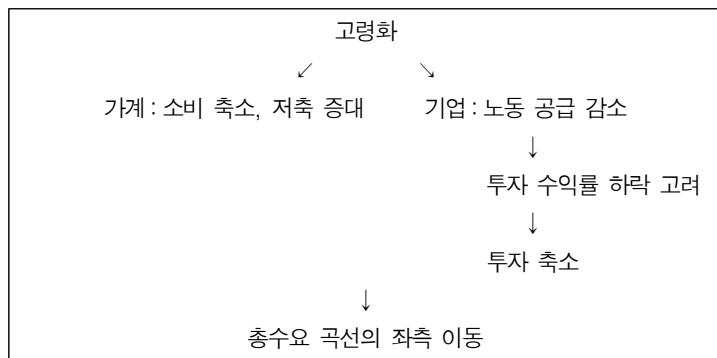
<고령화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

[Rew] 문단2-4)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좋겠다.

- 2) 또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에 가계는 은퇴 후를 대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기업은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고려하여 투자를 줄인다. 이는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맥락 짚기] ‘고령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다.

⇒ 인과적 방식으로 진술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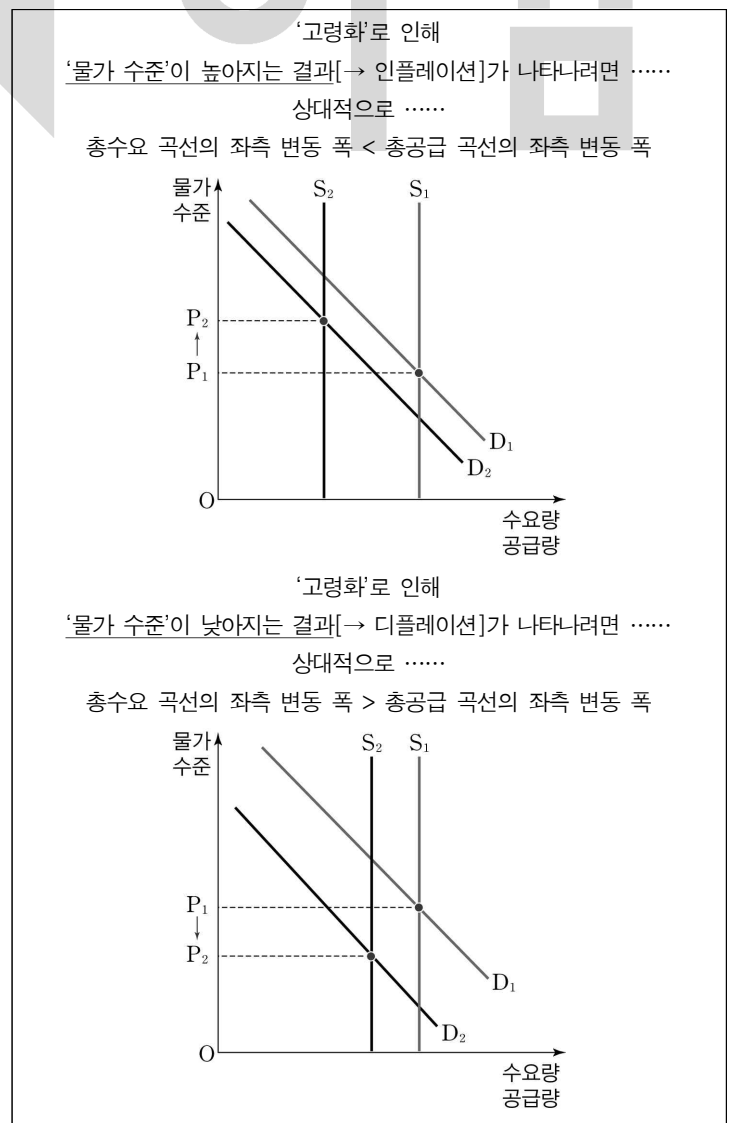


<고령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참조] 이 경우에 총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Y축에 놓인 ‘물가 수준’에 대한 변수[→ 내생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의 변동은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그래프에 반영된다면, ‘물가 수준’ 이외에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외생 변수]들의 변동은 총수요 곡선 자체의 좌우 이동의 형태로 그래프에 반영된다.

- 3) [고령화로 인해] 디플레이션[→ 문단1-3)]이나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의 여부는 총수요 곡선의 변동 폭[→ ‘고령화’의 경우 왼쪽 이동 폭]과 총공급 곡선의 변동 폭[→ ‘고령화’의 경우 왼쪽 이동 폭]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결국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는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 결론적으로 2)와 3)을 종합하면, ‘고령화’로 인한 ‘물가 수준’의 변화 방향,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고령화’로 인한 ‘총수요 곡선의 변동 폭’과 ‘총공급 곡선의 변동 폭’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다.



문단4 : 고령화가 물가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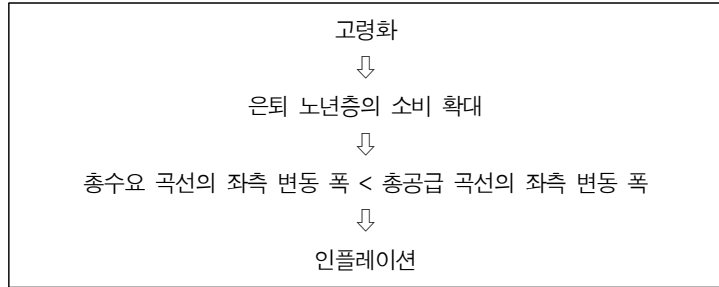
- 1) 그런데 여러 요인들[→ ‘고령화’ 이외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총수요와 총공급 각각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물가의 방향[→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 결국 어떤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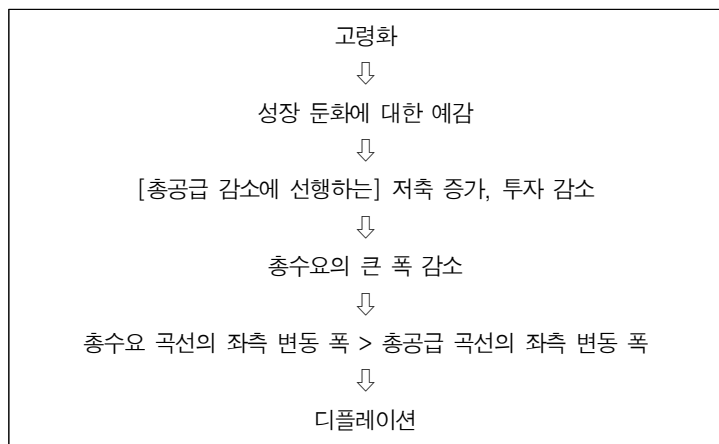
- 2) 그 경로에 대한 가설 중 ‘생애 주기 가설’은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본다. 사람들은 전 생애를 고려하여 청장년기에 왕성한 생산 활동과 저축을 하고 은퇴 후에 비로소 저축해 둔 자산으로 소비를 하므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측면의 영향[→ 총공급의 감소 폭. 문단3-1)에서 ‘노동 인구의 감소’나 ‘노동 생산성의

감소'는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보다 총수요의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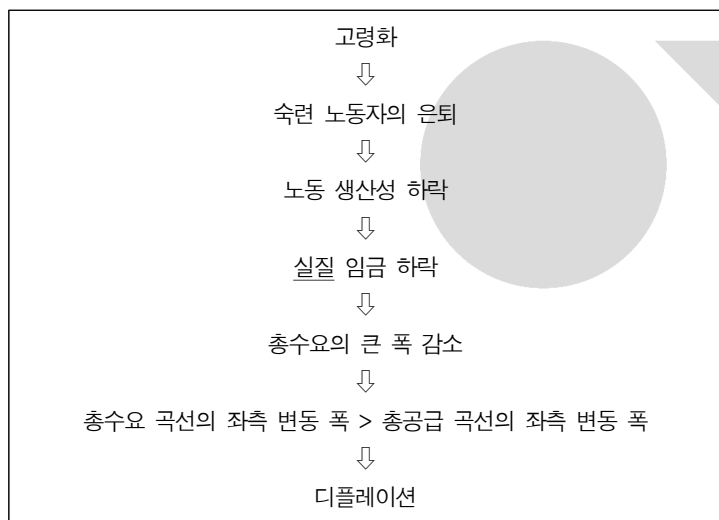
[**맥락 짚기**] 여기서부터 단정하고 평면적인 진행이다. 각각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을 강조하는지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3) 이와 달리 '기대 경로 가설'은 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본다. 향후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심리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미리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이 때문에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둔화 이전부터 이미 총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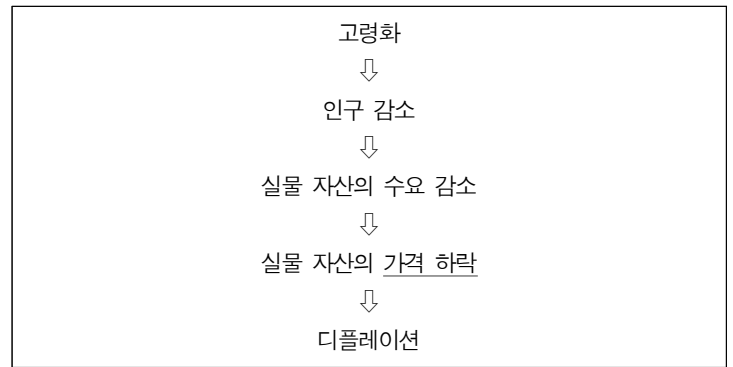


- 4) '노동 생산성 하락 가설'에 따르면, 고령화는 인적 자본 손실과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숙련 노동자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고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 결국 총수요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문단2-4)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은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다만 '노동 생산성 하락 가설'은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실질 임금에 변화를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쳐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주장인 게다.

- 5) 한편 고령화는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토지나 주택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 디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자산 가격 하락 가설'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문단5 : 바람직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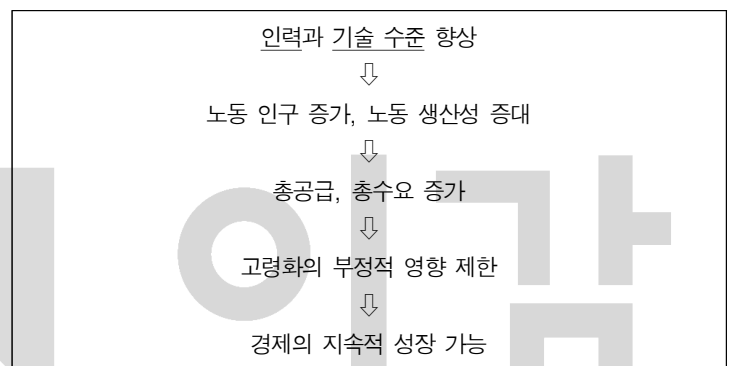
- 1) 고령화가 경기 변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동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

[**맥락 짚기**] 문단4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다.'[→ 의견에 관한 사실 진술]라는 얘기라면, 마지막 문단5는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 진술] 정도의 얘기겠다.

⇒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당연히 여성 노동자가 늘어나는 만큼 '노동 인구'는 늘어난다. '노동 인구'의 증가는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 2)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기술 혁신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총공급 증가] 그에 대한 기대로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하지만 '노동 인구'의 수를 늘린다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28번 <보기>를 참조해라.]. 따라서 그와 함께 교육과 정책을 통해 '노동 생산성' 역시 증대시킨다면 마찬가지로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게다. 결국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라는 마무리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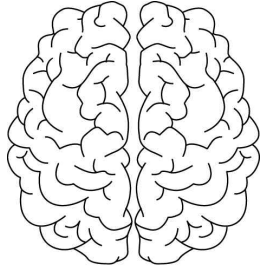
과학 - 생리학 - 대뇌의 편측화

대뇌, 좌반구, 우반구, 언어 중추, 대뇌 피질, 뇌량, 대뇌의 편측화, 반구 간 독립 가설, 신경 세포, 세포체, 축삭 돌기, 수상 돌기, 미엘린, 유수 신경, 무수 신경, 반구 간 지연 시간

* 지문 분석

문단1 : 대뇌의 편측화

- 1) **대뇌**는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뉘어 형태상 **대칭 구조**를 띠고 있다.
⇒ 대략 이런 느낌을 떠올리면 충분하겠다.



좌반구 우반구

- 2) 그런데 좌반구와 우반구에서 서로 대응되는 지점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언어 중추**가 **대뇌 피질** 중 좌반구의 특정 위치에 치중하여 존재하고 있어서, 언어 기능은 우반구보다 좌반구에서 더 우세하다.

[주목] 중요하다. 대뇌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대칭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비대칭이라는 얘기가. 따라서 어떤 기능은 좌반구에서 더 우세하겠고, 또 어떤 기능은 우반구에서 더 우세하겠다.

⇒ 예를 들어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말하는 기능을,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두 영역 모두 좌반구의 특정 지점에 몰려 있다.

- 3)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통로인 **뇌량**을 가로지르는 **신경 세포**들을 통해 양 반구가 정보를 교환하며 소통을 하지만, ...

⇒ 그렇다고 좌반구와 우반구가 아예 따로 노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정보 교환과 소통이 '신경 세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자.

- 4) 이러한 **소통 없이** 좌반구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2)의 상술이다. 복잡한 수준의 언어 기능을 수행하려면 '뇌량'을 통한 우반구와의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언어 기능은 좌반구에서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준의 언어 기능은 좌반구만으로도 충분하단다.

- 5) 이렇게 양 반구의 기능이 서로 다른 것[→ 기능의 비대칭성]을 **대뇌의 편측화**라고 한다. 다수의 신경 생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반구 간 독립 가설**에 따르면, 대뇌의 편측화는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된, 대뇌의 효율적인 작동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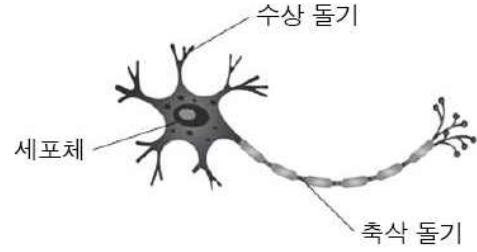
[맥락 짚기] '대뇌의 편측화'가 진화의 결과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내용도 중요하다. 그리고 두 내용 모두 '반구 간 독립 가설'이라는 **특정 관점의 진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문단2 : 반구 간 지연 시간

- 1) **신경 세포**는 핵을 포함하는 **세포체**로부터 하나의 긴 **축삭 돌기**와 여러 개의 짧은 **수상 돌기**들이 뻗어 나오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Rew] 낯선 개념은 아니다. 문단1-3)에서 두 반구 사이의 소통을

책임지는 게 바로 '신경 세포'였다.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었다면 성공이다.



- 2) 수상 돌기는 인접한 신경 세포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며, **축삭 돌기**는 이를 다시 인접한 다른 신경 세포에 전달한다.

⇒ '신경 세포 A'의 축삭 돌기는 인접한 '신경 세포 B'의 수상 돌기에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받아들인 '신경 세포 B'는 또다시 인접한 '신경 세포 C'에 축삭 돌기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 3) [신경 세포에서 인접한 신경 세포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는 **축삭 돌기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빠르다.

⇒ 그런가 보다.

- 4) 또한 축삭 돌기가 **미엘린**이라는 인지질 성분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유수 신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무수 신경**인 경우가 다르다.

⇒ 축삭 돌기 단면적과 함께, 신경 세포의 유형도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의 변수인데

- 5) 대뇌의 한쪽 반구에서 다른 쪽 반구로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시간인 **반구 간 지연 시간**은 유수 신경을 통하는 경우에는 평균 5밀리초 [→ 시간의 단위. 1밀리초는 1초의 1000분의 1이다.] 이하이지만, 무수 신경을 통하는 경우에는 평균 300밀리초 정도인 것이다.

[맥락 짚기] 평균 몇 밀리초인지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유수 신경'의 경우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경 세포 중에서 '유수 신경'의 비중이 높을수록 '반구 간 지연 시간'은 짧아질 게다. 정리하면

- 축삭 돌기의 단면적 ↑ ⇨ 반구 간 지연 시간 ↓
- 유수 신경의 비중 ↑ ⇨ 반구 간 지연 시간 ↓

- 6) 대뇌의 양 반구가 소통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구 간 지연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Rew] 이걸 '대뇌의 편측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대뇌의 편측화'는 문단1-4)에서 설명한 대로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 한마디로 '대뇌의 편측화'는 반구 간 지연 시간과 딱히 관련이 없다.

- 7)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진화는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향이나 **대뇌의 편측화**를 통해 대뇌의 기능이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목] 중요하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대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었다.

- ①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한다.
- ②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①을 선택하면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축삭 돌기의 단면적 넓이'를 최대화하고, '유수 신경의 비중'을 최대화해야 한다.

⇒ ②를 선택하면 '반구 간 지연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대뇌의 편측화'를 통해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보아하니 문단1-5)에서 설명한 대로 '대뇌의 편측화'는 ①보다는 ②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인가 보다.

문단3 : 인간의 진화 양상

- 1) 인간은 고차원적인 정신 작용을 위해 대뇌 피질의 표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 결과 대뇌가 다른 종에 비해 커졌을 뿐 아니라

⇒ 그렇고

- 2) 대뇌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역시 다른 종에 비해 월등히 길어졌다. 대뇌 구조의 완성이란 개체가 태어난 후 미숙 상태의 대뇌가 발육하여 완전한 구조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뇌의 크기'도 커졌지만 '대뇌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역시 길어졌다.

- 3) 진화의 이러한 양상은 반구 간 지연 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제약을 낳았다.

⇒ 이때의 제약은 분명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제약일 테고, 이는 ①, ② 사이의 선택과도 관련이 깊을 게다.

[맥락 짚기] 앞으로 왜 ①보다는 ②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다.

문단4 : 진화의 한계

- 1) 대뇌의 편측화 대신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려면, ...

⇒ ② 대신 ①을 선택하면

- 2) 대뇌가 커지는 만큼 뇌량이나 축삭 돌기가 그에 비례하여 커져야 한다. 대뇌가 커지는 만큼 반구 간 소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대뇌가 커지는 만큼 반구 간 소통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할 게다.

- 3) 그런데 공간상의 제약과 세포 발달상의 제약으로 인해 뇌량의 크기나 이를 지나는 축삭 돌기의 단면적은 그에 비례하여 커지지 못했다. 뇌량의 크기나 축삭 돌기 단면적을 키워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진화→ ①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맥락 짚기] 정리하자.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대뇌의 크기'가 커졌는데(→ 문단3-1)), 이 상황에서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려면 [→ ①을 선택하려면] '뇌량의 크기'와 '축삭 돌기의 단면적'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다.

- 4) 또한 대뇌의 신경 세포 수가 무수히 많고 대뇌 구조의 완성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문단3-2))에 따라 대뇌의 모든 신경 세포들의 축삭 돌기가 미엘린에 의해 감싸지도록(→ 대뇌의 모든 신경 세포들이 '유수 신경'이 되도록) 하기 힘들다는 제약을 받았다.

[맥락 짚기] 마찬가지로 ①을 선택하려면 '유수 신경'의 비율도 최대화해야 하는데, 이 역시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다.

- 5) 그래서 실제로 대뇌의 유수 신경 비율은 40% 정도로, 다른 부위의 신경 세포들에 비해 비율이 높다. 유수 신경의 비율을 늘려서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진화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 달리 말하면, '대뇌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유난히 길기 때문에 대뇌의 신경 세포 중 유수 신경의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문단5 : 반구 간 독립 가설의 결론

- 1)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대뇌의 반구 간 지연 시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의 진화가 나타나지 못했다. 대뇌는 양 반구의 소통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맥락 짚기] 정리하면, ①을 선택하는 것은[→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대뇌의 크기'가 커졌고 '대뇌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였고

- 2) 대뇌의 편측화→ ②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대뇌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결과이다.

⇒ 따라서 ②를 대신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이다. 이 경우에는 '유수 신경의 비중'도 딱히 중요하지 않고, '축삭 돌기의 단면적'도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뇌의 특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작동 방식임이 틀림없다.

- 3) 그래서 진화 단계상 인류의 직전 단계인 원숭이의 경우보다 인간이 대뇌의 편측화 정도가 훨씬 강하다.

[Rew] 문단1-5)에서 처음 제기된 '반구 간 독립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겠다. 이들의 주장대로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②를 선택한 결과가 '대뇌의 편측화'라면, 아직 진화가 덜 이루어진 원숭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뇌의 편측화'가 덜 이루어졌을 게다.

⇒ 따라서 '반구 간 독립 가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원숭이'도 진화를 거쳐 '대뇌의 크기'도 커지고 '대뇌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질 게다. 그 결과 원숭이 역시 ① 대신 ②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대뇌의 편측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다.]

[38~42] 고전시가 : (가) 안도환, 「만언사」

* 수록 지문 평가

중인의 유배 가사이면서 귀양살이의 비참한 상황과 절실한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이다. 여러 필사본들이 남아 있을 만큼 당대에도 인기가 많았다. 수록 지문은 화자가 부모, 친척들과 헤어져 유배 길을 떠나는 대목이다. 이별을 앞두고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슬픔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과 한숨이 터지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과 유배 길의 험난한 여정이 펼쳐진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부모 친척과 헤어져 유배 길에 오름

어디서 신하된 이가 죄짓자 하라마는

⇒ 신하된 이로서 일부러 죄를 짓고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다.

대액(大厄, 몹시 사나운 운수)이 들려 하니 눈조차 어둡고나

→ 큰 액운이 들려니 눈까지 어두워졌구나.

⇒ 액운이 끼어 일이 크게 잘못되려고 해서 그런지, 눈마저 어두워져 어리석게도 죄를 지었다는 거다.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액운 탓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烈火, 맹렬하게 타는 불)에 들어로다

→ 마른 쇠를 등에 지고 맹렬한 불에 뛰어들어있구나

⇒ 자신의 지난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다.

재가 된들 뉘 탓하리 살 가망 없다마는

→ [내 몸이] 재가 된들 누구를 탓하리, 살 가망이 없다마는

⇒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 해도 누굴 탓할 수 없으며, 더욱이 목숨을 건질 가망조차 없는 처지라는 말이다.

일명(一命)을 꾸어 주셔 해도(海島)에 보내시니

→ [임금께서] 한 목숨을 꾸어 주셔서 바다 가운데 섬에 보내시니

⇒ 죽을 목숨이었는데, 임금께서 목숨을 하나 꾸어 주셔서 죽지 않고 바다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다는 거다.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어와 성은(聖恩)이야 갈수록 망극(= 임금의 은혜가 한이 없음)하다

⇒ 죽다 살아났으니, 화자로서는 큰 다행인 거다. ‘성은이 망극하다’는 말이 진심이 아닐 리 없겠다.

강두(江頭, 강가의 나무 근처)에 배를 대어 부모 친척 이별할 제

→ 강나루에 배를 대어 부모 친척 이별할 때

슬픈 눈물 한 소리에 막막(= 아득하고 막연함) 수운(愁雲, 슬픔을 느끼게 하는 구름) 머무는 듯

→ 슬픈 눈물, 큰 울음소리에 아득한 근심 구름이 머무는 듯

⇒ 부모와 친척들과 이별할 때가 되자 여기저기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다. 마치 근심을 가득 머금은 구름이 주변에 자욱이 끼어 있는 것만 같은 우울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손잡고 이른 말썽 종이(= 별 탈 없이 잘) 가라 당부하니

→ [부모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르는 말썽, 탈 없이 잘 가라 당부하시니

⇒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그저 ‘잘 가라’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절절하게 배어난다. 부모가 당부하는 짧은 말 한마디를 직접 드러냄으로써 극적인 장면의 긴장감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을소냐

→ 가슴이 메어서 대답이 나을쏘냐.

⇒ 화자는 슬픔이 북받쳐 오르며 가슴이 막힌 것만 같아서 목소리도 잘 나지 않는다. 슬픔 외에도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에 더욱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취한 듯 실성한 듯 눈물도 하직(下直)이라

→ 취한 듯 실성한 듯 눈물로 하직하네.

강상(江上, 강물 위로)에 배 떠나니 이별 시(時)가 이때로다

→ 강물 위로 배 떠나니 이별할 때가 이때로다

산천이 근심하니 부자 이별함이로다

→ 산천이 근심하니, 부자(父子) 이별 때문이로다.

⇒ 부자가 이별하기 때문에 산천이 근심한다는 뜻이다. 자기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 산천도 그럴 것이라고 감정이입 하고 있다.

노 젓는 소리에 흐르는 배 살[→ 쏜살, 즉 쏘아 놓은 화살] 같으니

→ 노 젓는 소리에, 흐르는 배는 쏜살같이 빠르니

⇒ 노 저어 가는 배가 빨라야 얼마나 빠를까. 부모 친척과 멀어져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심정이 담긴 거겠다.

일대 장강(長江)이 어느덧 가로선다

→ 장강이 어느덧 가로로 길게 늘어선다.

⇒ 물 흐름에 맡겨 배 저어 내려오다 보니, 마침내 강의 맞은편에 닿았고, 화자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며 길게 연결된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풍편(風便, 바람결)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 바람결에 [부모와 친척들이]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 강 너머, 저 멀리서 부모와 친척들이 우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화자의 귀까지 들리는 거다.

행인도 낙루(落淚, 눈물을 떨어뜨림)하니 내 가슴 미어진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심한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다)

→ 행인도 눈물을 떨어뜨리니, 내 가슴 미어진다.

⇒ 화자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별이 남들 보기에도 그만큼 슬프고 애처롭다는 뜻이겠다.

호부 일성(呼父一聲, 아버지를 부르는 한마디 소리) 엮어지니 애고 소리뿐이로다

→ ‘아버지!’ 소리쳐 한 번 부르고는 없어지니 ‘애고’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 화자는 강 건너를 향해 ‘아버지’ 한 마디를 소리쳐 부르고는 기절하듯이 앞으로 폭 쓰러진다. 그리고는 슬픔이 사무쳐 ‘애고’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다.

규천 고지(叫天叩地, 하늘에 부르짖고 땅을 침) 아무런들 아니 갈 길 되올소냐

→ 하늘 향해 부르짖고 땅 치기를 아무리 한들,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 하늘 향해 울부짖으며 땅을 치기를 아무리 해 봐야, 유배지를 향해 길을 갈 수밖에. 체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범 같은 아전 사령 수이 가자 재촉하니

→ 범같이 사나운 아전 사령이 빨리 가자 재촉하니

하릴없이 말에 올라 앞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몇 구빈고

→ 넘어야 할 산은 몇 겹이며 건너야 할 강은 또 몇 구비인가?

⇒ 유배지로 가는 길이 그만큼 멀고 험난하다는 뜻이다.

넘어가도 뵈이고 건너가도 물이로다

→ 산을 넘어도 또 산이고 물을 건너도 또 물이로다.

석양은 재를 넘고 공산이 적막한데

⇒ 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어 빈산이 쓸쓸하고 고요하다는 거다.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이 피를 토하니

⇒ 두견새가 실제로 피를 토할 리는 없고, 그만큼 처량하게 운다는 의미겠다.

슬프다 저 새소리 불여귀(不如歸)는 무삼 일고

→ 슬프다, 저 새소리 ‘불여귀’는 무슨 일인가

⇒ ‘불여귀’는 두견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화자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부모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중략)

토막2 : 배를 타고 유배지인 추자도로 향함

부모처자 다 버리고 어드러로 혼자 가노

→ 부모와 처자 다 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나

우는 눈물 소(沼, 늪)가 되어 해수(海水)를 보탠다

→ 우는 눈물은 늪이 되어 바닷물을 보탠다.

⇒ 화자가 흘리는 눈물이 늪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자연 불어난다는 거다. 과장스러운 표현이겠다.

어디서 일편 흑운(一片黑雲, 한 조각 검은 구름) 홀연(=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광풍(狂風) 무삼 일고

→ 어디서 검은 구름 [덮이고] 갑자기 광풍이 [부는 것은] 무슨 일인가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 물결이 거세다.

크나큰 배 조리(= 쌀을 씻을 때 흔들어서 돌이나 찌꺼기를 골라내는 기구) 되니 오장육부(五臟六腑) 다 나온다

⇒ 배가 출렁이니 뱃멀미를 할 수밖에.....

천은(天恩) 입어 남은 목숨 마저 진(盡)케 되었구나

→ 임금의 은덕[→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남아 있게 된 목숨이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써 마저 없어지게 되었구나.

초한(楚漢) 세상 한 영중(漢營中)의 장군 기신은 되려니와

→ 기신처럼 군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은 싫지 않으나

⇒ 기신은 한고조가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한고조로 변장하여 그를 피신시키고 죽은 장수이다.

서풍 낙일(落日) 먹라수의 굴 삼려는 불원(不願)이라

→ 먹라수에 몸을 던진 굴원처럼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 굴원은 초나라 삼려대부로 있다가 참소로 쫓겨난 뒤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요컨대 지금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싫다는 거다.

천명(天命, 하늘의 명)이니 하릴없다 일생일사(一生一死) 어찌하리

→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명이니 어쩔 수 없다. 한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인간의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 체념하고 수용하는 태도다. 물에 빠져 죽기는 싫다고 했다가, 또 금방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